

익산 승마 인프라 전국 '최고' "아동 복지 증진·관심에 감사"

다양한 강습·사회 공헌 프로그램 전개...이용객 호응 커

익산시가 구축한 전국 최고 수준의 승마 인프라가 큰 인기를 끌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레저 관광을 넘어 재활과 치유 승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승마 인구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8일 시는 올해 초 개관한 공공승마장이 전국 규모의 승마시설로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개관 첫 달인 지난 3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시민들의 공공승마장 이용 횟수는 총 4천여건으로 월 평균 434명이 승마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승마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어

린이·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다양한 강습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강습과 함께 재활 치유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해 왔다. 지난 7월 한국마사회 그린협력승마시설로 선정돼 재활 승마 교실을 진행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승마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탄탄한 인프라를 토대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해 승마도시 익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하반기 익산시장애 전국승마대회와 지구력대회, 유소년승마대회, 익산승마협회장배 전국대회 등 모두 5개 대

회를 유치해 2천여 경기를 치렀다. 해당 기간 동안 선수와 방문객 1,800여 명이 지역을 방문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

시는 내년에도 공공승마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과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해 지역 농촌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

우선 가상현실을 활용해 다양한 승마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XR 말산업 체험관은 내년 하반기까지 체험공간을 완성한다.

포니랜드 체험관도 건립공사가 한창이다. 포니랜드 체험장은 먹이주기 체험장과 포니승마 체험길,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며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 방과 후 초등돌봄 지원... 학습 기자재 기탁

군산시는 28일 전북은행이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미룡로2)에 300만원 상당의 학습 기자재(책상·의자세트, 컴퓨터 2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전북은행 3개 지점(△전북은행 군산지점(지점장 전상익), △전북은행 소룡동지점(지점장 신연숙) △전북은행 조촌디오션지점(지점장 서수정)이 각각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해 이뤄졌으며 기탁된 물품은 이용 아동의 놀이 및 학습지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이들이 돌봄 공백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으로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실 아동청소년과장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아동 복지 증진의 관심에 감사하며, 기탁된 학습 기자재를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미룡동, 내흥동, 조촌동)를 운영 중이며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올해 마무리·내년 계획 수립 철저히 해달라"

정현을 익산 시장, 대규모 국가예산·공모사업 선정 등 큰 성과 이뤄낸 직원들 격려도

정현을 익산시장이 한해 많은 성과를 낸 직원들을 격려하며 새롭게 시작할 업무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2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이 진전되었고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는 지난 1년간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끝까지 노력해 준 결과이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주 전례없는 폭설로 발생



비상근무와 제설작업으로 애쓴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밤낮 없는 제설작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올해 민생부터 복지, 경제를 아우르며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969억원 증가한 1조6천725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국가예산도 약 640억원 늘어난 9천708억원을 확보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 시장은 성공적인 연말 마무리와 내년도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도 당부

했다.

정 시장은 "종무식과 퇴임식 등 각종 행사를 비롯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며 "2023년 이 시작되면 바로 의회 업무보고가 있으니 업무계획 수립도 철저히 하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올해 익산 시장 최고의 뉴스로 선정된 '신혼부부·청년 내집 마련 패키지' 사업을 적극 홍보해 지속적으로 확장에 나갈 것을,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과 결식아동에 대한 차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길 것을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 안전 최우선 폭설·한파 선제 대응

익산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강력한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관련 민원이 감소했다.

올해 현재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민원은 7건으로 지난 2020년 신고 건수 605건, 지난해 49건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는 시가 동파 예방을 위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 덕분이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해 왔으며 수온가 요청 시 계량기 내부 보온재를 제공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계량기 동파를 예방했다. 또한 지난해 스마트 미터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계량기의 60%를 동파 예방에 유리한 견식 계량기(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했다.

앞으로도 동파 예방을 위해 저층 아파트와 구도심 상가, 읍면지역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출퇴근길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하림, 익산시 저소득층에 장이라면 1200상자 기탁

(주)하림(대표 정호석)은 28일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관내 저소득시설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라면 1,200상자(1억원 상당)기탁식을 가졌다.

후원된 라면은 기탁식이 끝난 후 시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바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호석 대표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간담하고 건강간식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천연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라면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맛있게 드시고 한파를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했



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민을 위해 올해에도 많은 양의 라면을 기부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하신

뜻대로 시설과 각 가정에서 잘 전달되어 드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하림은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매년 각계각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지원과 식품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관내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다ieroom 밥차 운영에 직원들이 동참하여 직접 삼계탕을 준비해서 드실수 있도록 하는 등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배산공원 대변신 '시민 품 안에' 리모델링

익산시민 대표 원터 배산공원이 자연과 빛의 향연으로 대변신하며 시민의 자부심으로 돌아온다.

28일 시에 따르면 배산공원은 돌레길 산책로 정비, 연정정 데크 계단 설치, 소나무 군락지와 나무숨 터널 경관 조망연출 등 대대적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낮과 밤 동시에 녹지를 누리는 인기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25.8억을 투입해 2023년 6월까지 공원 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1단계로 노후 시설과 고사목 제거, 바닥 포장 및 야간조명

재정비 나무 식재 등 끝마쳐 시민편익을 높였다. 내년 상반기에 추가 수목 조경과 주민 편의 공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958년 공원 지정 이후 60여 년 동안 시민의 추억과 힐링의 생태자원인 배산공원을 영구적으로 시민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배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면적이 34만5,220㎡로 전체 보상비 약 480억 원으로 연일정씨중종토지, 서씨중종, 개인 사유지에 해당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서부지역 초등생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군산시보건소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2023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서부지역(소룡·산북·미성동) 초등학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꿈나무 건강해지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스마트폰 SNS(밴드가입)를 통해 성장 체중, 음악활동기 등 신체활동 영상을 보며 각 가정에서 신체활동 등을 따라하고 유소년 음주·흡연·중독 예방 교육 영상을 통해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에게는 출납기, 아령, 훌라후프 등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운동 물품과 방학동안의 무료한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컬러링북(그림그리기 책)으로 구성된 건강꾸러미가 제공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장애인·노인 이동편의 제공

군산시는 28일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해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통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해 오는 2023년 10개소에 장애인 전용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통보장구 충전기는 이미 11곳에 설치 됐지만 내년도에 10곳을 추가 설치해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편의를 제공해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설치 필요성 및 효율적 관리를 고려해 주요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센터와 같이 개방시간이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는 곳에는 가급적 외부에 설치해 불편함을 줄일 예정이다.

또 충전기는 1시간 내외로 유효 충전이 가능하고, 경계잔량 및 전류 기준을 충족(22~28V, 3.5~7A) 방수·방진기능 및 핸드폰 충전기능을 갖춘 것으로 제한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